

고선영 사무관(02-2100-2991)

- 1 -

□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가 발표(2.28일, 3.1일)한 對러 금융제재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, 금융제재 조치의 현장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○ 아울러, 美·EU 등 주요국의 금융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강화\*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\* EU는 러시아 7개 은행(Otkritie, Novikom, PSB, Rossiya, Sovcom, VEB, VTB)에 대해 3.12일부터 SWIFT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의(3.2일)

○ 한편,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향후 전개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낮은 만큼, 관련 투자시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우리 국민·기업 등 거래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, 거래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
○ 특히, 최근 일부 은행 지점에서 금융제재 조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對러 금융제재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래 까지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,

- 일선 창구에서 금융제재 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○ 또한,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운용사에서는 환매연기 펀드의 자산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, 금융 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□ 한편, 금융당국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및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등을 통하여 금융시장·對러 금융제재 관련 상황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일일점검 중이며,

- 러시아와 연관된 기업·유학생·주재원 등 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「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\*」를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,

\* 연락방법: 금융감독원 내방, 전화(1332→6), 팩스(02-3145-8662), 인터넷([www.fcsc.kr](http://www.fcsc.kr))

- 금융권에서도 개인·기업 거래 고객들이 애로해소를 위해 동 센터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-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국민·기업의 금융애로와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,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·협력을 지속·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
#### [참고]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

